

우리 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137-88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1 국민은행서초동지점5층 TEL:595-6364 FAX:595-6397 jrosa21@hanmail.net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발 신 (담당자)	홍 보 팀 팀장 장 미 정 담당자 핸드폰 [REDACTED]
발 신 일	2006 년 5 월 15 일 (오후 7 시 30 분)
제 목	KBS 라디오 국제방송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인터뷰요청
요청사항	전화 인터뷰 요청입니다. (8분 정도 소요예정)
전송자료 리 슷 및 내용요약	1. 우리나라 빈곤 여성의 실태 2. 여성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지금까지 빈곤 여성을 위해 해 오신 구체적인 활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 CJ홈쇼핑: 빈곤여성가장 의료지원사업: 모금방송 결과 현재(2005년부터) 총 10억여원 기부약정350여명 기부참여 - 삼성코닝정밀유리: 불임가족지원사업 총2억원 (현재 100가구지원) - (주)놀부: 놀부데이: 빈곤여성가장과 가족초청 식사나눔, 당일 이익금 전액 후원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바자회: 빈곤여성가장 지원 4. 여성 빈곤을 극복하고 여성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 인터뷰 요청일시: 5월16일(화) 오전 10시 20분 또는 5월17일(수) 오후 2시 40분
기타(비고)	녹화 준비를 해야 해서 오늘 중으로 연락 달라고 합니다. 별첨자료 보냅니다. 지난 한겨레신문 박영숙 이사장님 인터뷰기사 보았습니다.

KBS 한국방송

수 신: 한국여성재단 박명숙 이사장님

발 신: 작가 이윤이

프로그램: KBS 라디오 국제방송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담당: 감미애 PD, MC: 안희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국제방송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는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방송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방법은 KBS 라디오 국제방송 인터넷주소 world.kbs.co.kr로 들어오셔서 11개 언어 가운데 <우리말>을 클릭하신 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한국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그 시각부터 각국으로 여러 번 송출됩니다.

전화 인터뷰 소요시간은 8분 내외입니다.

* 우리나라 빈곤 여성의 실태

* 여성이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지금까지 빈곤 여성을 위해 해 오신 구체적인 활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빈곤여성가장 의료지원사업(CJ홈쇼핑, 놀부데이, 롯데바자)

* 여성 빈곤을 극복하고 여성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또는 17일 오후 2시 40분부터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는 녹음으로 진행되고 방송은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빈곤한 여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성이 가구주인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같은 여성들의 빈곤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70세가 넘도록 발로 뛰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 이사장이 바로 그 분인데요,
<<바로 이 사람>> 오늘 이시간에는 박 이사장님을 전화로 모시고
여성 빈곤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여성 빈곤.... 어떻게 보면 참 익숙한 말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빈곤 실태는 어느정도입니까?

2.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여풍'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성들의 파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빈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가난하고 힘들 수 밖에 없는건가요?

3. 현재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신데, 이 재단이 지난 99년에 발족하면서 최초의 민간여성 기금을 조성하셨다고요?

(재단 소개)

4. 어떤 계기로 여성 빈곤에 관심을 갖고 이같은 재단을 설립하게 되셨습니까?

왜 여성노동자는 '더' 가난하지?

빈곤률 남성 3배...매년 반복되는 요구안이 말해주는 현실

2006-03-02 오후 6:03:41

여성노동연대회의는 98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06년 여성노동 5대 요구'를 발표했다.

올 여성노동연대회의의 5대 요구는 ▲첫째 근로여성의 빈곤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현실화, ▲둘째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차별금지 입법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셋째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적용을 위한 입법, ▲넷째 남녀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 ▲다섯째 직장내 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 관련 연대단체다.

그런데 이번 요구안은 지난 2005년 요구안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 그동안 여성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전혀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여성근로자의 빈곤, 가구의 빈곤으로 이어져

특히 여성의 빈곤문제는 여성계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9.5%로 증가하면서 여성의 빈곤이 가구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가구

율은 21%로 남성가구주(7%)의 3배,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율은 남성의 4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은 무려 78.1%~82.8%로 높다는 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저 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가장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월평균 소득 64만6천원~88만8천원에 불과한 일용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620만명 중 70%를 차지하는 430만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다.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역시 여성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형태다. 여성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출산을 우려하는 정부가 산전후휴가비 지원을 늘리는 등 모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의 노동 단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의 70%에 이르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어 여성계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녀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를 위해 배우자의 유급출산 휴가 5일,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도입, 현재 40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료자율화 철폐,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내 성차별 해소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기업의 고용관리 현황 정보의 공개, 공공부문 30% 여성승진할당제 도입, 간접차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빈곤'은 '빈곤'과 어떻게 다른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여성빈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흔히 '빈곤의 여성화' 명제나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는 비유를 인용한다. 빈곤의 여성화는 전체 빈곤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개념이고, 빈곤이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은 전 세계 빈곤인구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는 반드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따라온다.

빈곤 해결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빈곤인구 중에 여성부터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여자가 더 많으니 여자부터 구하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좀 궁색하다. 빈곤 해결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예기는, 가난한 사람 중에 여자가 더 많은 데는 그렇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계,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동(소득활동),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보장, 그리고 가족.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족'이다.

빈곤은 언제나 가족을 단위로 논의된다. 절대빈곤의 선을 긋는 최저생계비도 두 식구일 때 얼마, 세 식구일 때 얼마로 설정되며, 중위소득의 50%로 상대빈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가구소득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누군가가 가난하면 그것은 그의 가족이 모두 가난한 것이지, 식구 중에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가난하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통계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본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1%로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7%에 비하여 3배라고 한다. 여성가구주 가구 5가구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절대빈곤 가구라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논문에서 개인을 단위로 본 통계수치는 좀 달랐다. 빈곤인구를 100으로 보면 여성이 55명이고 남성이 45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걸 결국 무슨 뜻인가? 여성이 남성가구주 가구 안에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성이 가구주가 되는 경우에는 빈곤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옛날 할머니들이 '남편은 울타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낡은 생각 버리기는 참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할머니 세대와 나의 세대 간에 금을 그었었다. 그러나 할머니 세대의 사고를 규정하던 현실, 밖으로 나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 지금도 엄연하게 지속되고 있다.

여성이 가족에 기대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노동을 통한 소득이 가능하던가, 아니면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신통치 않다. 여성은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의 65% 수준이다. 여성노동자의 45%는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저임금노동자이다. 사회보장은 어떠한가? 일이 없을 때 먹고 살려면 실업급여나 연금이 있어야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로 일해 보지 못한 대다수 여성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혹시 유족연금이라도 받으려면 또다시 피부양자 지위가 필요하니 역시 정규직 남편의 '울타리'가 등장한다. 시민으로서의 한 여성은 여기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여성이 가족 안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어간다고 하더라도 빈곤인구 중에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빈곤의 '여성화' 명제의 진짜 의미이다.

정부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한다. 이 때 주의하자. 여성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만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족,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는 남편이라는 소위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빈곤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바자회

1. 일 시: 2006년 5월 19일(금) ~ 5월 25일(목)

*주요행사일정: 19일(금) 바자회시작일

여성 무료 건강검진/ 아동 페이스페인팅/주부 헤나서 비스
20일(토) 기부물품판매/ 홍보대사 사인회 및 물품판매
21일(일) 웃찾사개그스태이션공연(공연후 사인회)
호루라기나눔(성폭력 없는 희망세상만들기 캠페인)

2. 장 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8층 행사장 및 야외행사장
오전 10시30분~오후8시(주말에는 8시30분)

3. 제 목: 빈곤여성가장 지원을 위한 '엄마에게 희망을!' 대바자

4. 기획의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일반인들과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고 여성을 위한 기부
축제의 달로 정착시키고자 롯데백화점과 함께 한국여성재단의 5월 캠페인의 의
의를 사회적으로 되살리고, 바자회 등 각종 행사협찬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소외여성복지지원과 기부의 아름다움을 사회에 알리고자 함

5. 롯데백화점 바자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8층 행사장에서 바자회 진행되며, 여성재단 고정부스도 8층에 마련
- 19~21일(금~일)은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여 여성재단 홍보에 주력
- 롯데백화점 측 이벤트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예정(현수막, 어깨띠, 호루라기)
- 롯데백화점 주간 전단에 바자회 홍보예정(18일)
- 롯데백화점 측 웃찾사 개그스태이션 공연준비(21일 2-4시/야외행사장)

2) 여성재단 준비내용

(1) 한국여성재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의 나눔 공간(8층 행사장)

- 한국여성재단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각 기업에서 후원 받은 물품 판매
- 기부한 기업의 홍보물 비치하여 이미지 제고
- 물품수량 확인하여 판매일 조정(금~일 집중 혹은 바자회 진행 내내 진행)
- 물품후원 섭외기업

(확정: 풀무원 녹즙/성주 막스엔스펜서 의류/애경 품클렌징)

-판매는 20-21일 양일간 집중

(2)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일일 물품판매

- 진양혜, 김보성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일일 물품판매 및 사인회 진행
(오후 2시-3시)

- 진양혜 홍보대사 '진양혜의 서툰아홉 러브레터' 에세이 책 20권 기부
(선착순 20분 자필사인 증정)

-5월 20일(토) 2-4시

(3)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함께하는 '폭력 없는 희망세상 만들기' 캠페인 진행

- 선전부스 설치 및 예방 호루라기 배포 등
- 5월 21일(일) 1-5시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

(4) 기타

-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칼라믹스·페이스 페인팅
- 여성재단의 모금함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참여할 때 100원의 기부를 유도
'100원의 기적'